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7. 20.(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해양레저관광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장 전준철, 사무관 류동의, 주무관 권형식• ☎ (044) 200-5253, 525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여름 휴가철 대비 해수욕장 방역 집중 점검 실시

- 7. 20.~3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특별 현장점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7월 20일(화)부터 열흘간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7월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94개 해수욕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7. 18. 기준)하는 등 해수욕장 개장 이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비수도권 휴가지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간부 주도로 해수욕장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휴가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말 전에 해수욕장 방역 대응을 집중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휴가지로 많이 찾는 강원, 충남, 부산, 제주 등지의 대형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안심콜 등록, 이용객 발열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해수욕장 방역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해수욕장 방역에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안심콜 등록, 마스크 착용 등 해수욕장 방역 수칙을 꼭 지키며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